



김호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16. 마드리드 첫 날, 수고했다

소로야 미술관에서 나와 다시 호텔로 향했다. 이제 해가 완전히 기울어 마지막 남은 석양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큰길 파세오 데 카스테야나스가 나온다. 이 길로 쪽 따라가면 호텔이 나올 것이다. 매우 넓은 이 길에는 가로수가 길 양옆, 그리고 가운데 중앙 분리선 역할을 하는 보도에도 줄지어 서 있었다. 겨울이라 나무들은 까맣고 앙상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면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길 풍경이 될 것 같았다.

마드리드 시가지지를 걸으면 기상이 높고 위풍당당한 인상을 받는다. 건물들은 반듯반듯하고 고풍스러우며 실용적으로 보였다.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느껴졌다. 그러나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 펼쳐 버릴 수 없는 기분은 어쩐지 약간 위압적인 기운이 감돈다는 것인데 1975년까지 프랑코 총통이 독재를 하던 스페인의 정치 역사를 고려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했다.

R과 나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가로수길을 걸어 호텔로 돌아왔다. 추위와 바람에 움츠리느라 체력을 많이 소모해 둘 다 녹초가 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일정이 매우 빡빡해서 그런 탓도 있지만 음식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낯선 도시에서 어젯밤부터 추위 속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물도 별로 마시지 못했고, 야채나 과일도 전무한 식사를 하다 보니 영양부족 상태가 된 듯 몸이 좋지 못했다.

지친 우리는 침대에 누워 쉬다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저녁 먹으러 나갈 기운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텔 주위에 적당한 먹을 곳도 없는 것 같았고 레스토랑을 검색해 그곳까지 찾아갈 의욕도 없었다. 룸서비스를 주문해 볼까 하고 방에 비치된 룸서비스 메뉴를 보니 역시 신선한 것이 없었다. 우리는 생수만 잔뜩 마시고 그대로 누워서 내일 일정을 의논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은 당연히 어디서 무얼 먹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었다.

사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자면, 오늘 (소셜 미디어에 뜨는 스페인 멋쟁이의 추천에 따라) ROI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살라 데 데스피에세에 가기는 했는데 맛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으나 음식으로 너무 난리를 떠는 느낌이 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타파스 문화가 융성한 스페인이라 이곳에는 타파스 형식을 빌려 음식을 꾸미는 셰프가 매우 많은 것 같았다. 전통 타파스를 하는 곳 외에는 셰프들이 자신들의 요리를 창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음식의 맛과 스타일에 공통 분모가 별로 없고 각기 개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스페인에는 야채 요리가 별로 없고 간이 짜며 칼로리 폭탄같은 음식이 꽤 많았다. 이전에도 스페인 여행을 했던 R의 경험에 의하면 스페인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고 당연히 셰프들도 흡연을 하기 때문에 미각이 둔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먹으면서 매일 커피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와인을 마시니 여자고 남자고 피부가 바짝 말라 거무죽죽하게 탄력이 별로 없다. 평소에 영화나 TV에 나오는 스페인 배우들이 하나같이 왜 그런 스타일들인지 이제야 이해가 좀 되었다. 음식이란 것이 그렇게 강력하다.

“엄마, 스페인도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은 야채를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아. 야채 샐러드 같은 것도 그저 가끔 곁들여 먹는 간단한 사이드로 여기고 항상 먹는 것도 아니야. 엄마는 샐러드를 밥으로 먹는 로스엔젤레스 문화에 익숙해서 괴로운 것이야. 하지만 나도 괴롭기는 해……” ROI 시무룩하게 말했다. 내일은 레스토랑 선택을 내가 주도해서 영양가 있게 잘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에게 맡겨 놓으니 너무 트렌디한 쪽으로 흘러가 가끔 방향이 이상해진다. 내일은 멋이고 유행이고 다 집어 치우고 소박한 전통 스페인 집밥 같은 것을 찾아 잘 먹어야겠다. 신선한 음식의 천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온 가엾은 두 천사는 이국의 도시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배를 곏으면서 잔다. 피곤하다. 마드리드 첫날, 정말 수고했다.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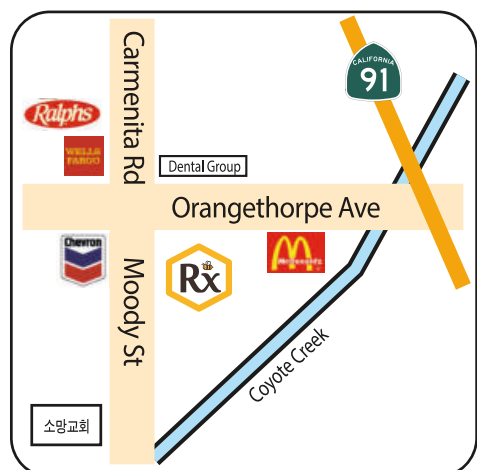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건강한 약국, 꿀약국!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꿀약국TM
Honey Pharmacy®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